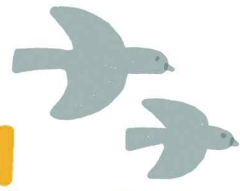


희망! 희망! 희망! 그리고 희망!!



읽을말씀

사도행전 27장 20-25절

외울말씀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5장 13절)

Main Idea

그리스도의 대사는
절대희망의 사람입니다.

포인트

희망을 선포해요.

포인트 익히기

어떤 고난을 만나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므로
우리의 삶은 반드시 희망이다.

마음열기

모든 사람들은 힘든 일을 만나요.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때는 언제였으며 무슨 일이 있었나요?



성경이야기

복음을 전하던 바울은 다른 죄수들과 함께 백부장 율리오의 감시아래 배를 타고 로마로 가게 되었어요. 배를 타고 항해하던 중 사나운 날씨를 만나 맞바람과 싸우며 갖은 고생 끝에 미항(아름다운 항구)이라는 곳에 닻을 내렸어요. 많은 항해의 경험을 가지고 있던 바울은 계속해서 항해를 하면 재난을 당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조금만 더 가면 더 좋은 항구가 나올 것이라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어요. 때마침 사나운 바람도 잦아 들고 잔잔한 바람이 불자 계속 항해를 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러나 항해를 시작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라쿨로라는 광풍(미친바람)이 맹렬한 기세로 몰아쳤어요. 광풍 속에서 배는 큰 손상을 입었고 배에 탄 사람들은 먹지도 못하고 살 소망도 없어졌어요. 그 때 바울은 지난 밤 천사를 보내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안심하세요. 배에 탄 사람들 모두 무사할 것입니다. 그러니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제서야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믿고 힘을 내었어요. 바울이 광풍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길 수 있어요.

